



충청북도 의회 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 전화 (043)220-5123/ (월간)

제267회 임시회

도정 · 교육시책 보고 청취 및 현안심의

충청북도의회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 청취,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채택, 제17대 오장세 의장 사퇴에 따른 제18대 이기동 의장 선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의와 기타 현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조례안 입안 및 심사방법과 2008년 달라



▲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지는 제도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학교신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
축 BTL 사업장과 제천종합연수타운 예정지 등 였다.

충청북도의 번영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충청북도의회 제18대 이기동 신임 의장 -



이 기 동 의장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충북이
국가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
한 시기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선
출되네 대하여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

임감을 느끼는 것이 지금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경험
을 바탕으로 전임 의장께서 이루어 놓
은 의정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제8대 충청북도의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으로 제18대 충
청북도의회 의장직 취임을 수락하는
바입니다. 150만 도민과 공직자 여려
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동
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지지에 힘
입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충청북도
의회의 발전과 충청북도의 번영을 위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
하는 도민 여러분! 금년은 제8대 도의
회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실용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정책

과 경제정책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수
도권 규제 완화와 세종시 건설 축소
우려 등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
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 중점적
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활
성화, 혁신 · 기업도시, 제천종합연수
타운, 오송역 건설, 오창과 오송과학
산업단지 집중육성, 농업경쟁력 제고
등 도정 주요시책들이 순조롭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 · 시민단체와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
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의견을 적

극 수렴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
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충
청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
는 의회」구현을 위해 활기찬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변함없
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도
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님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1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 기 동

개 회 사

도민의 뜻이 담긴 발전적 대안제시로 도민께 희망과 용기를...



심 흥 섭 부의장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15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체직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주민의 민생현장을 찾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FTA 체결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세종시 편입과 공공기관 배치 문제로 주민의 갈등이 표출되는가 하면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서민생활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인릭스 청주공장 증설 유치와 함께 도정사상 전국 최대 규모인 75개 업체에 13조원이 넘는 투자유치로 경제특별도의 초석을 다지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배치 등 주민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낙후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농업명품도와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과 함께 청주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행정역량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년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충북의 지역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행정도시와 중부권의 관문기능을 담당할 오송역 조기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오창과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를 비롯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맥을 같이하는 우리 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상호 협력관계로서 우리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새 정부 출범과 국제유가 인상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특별도 건설과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으로 도민의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금년도에 제8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의회발전과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해 보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이 우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다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사업과 국책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의회 역량을 결집해 나아갑시다!

또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회 임시회는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도정과 교육시책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도정발전과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회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도민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님!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자율과 경쟁, 배려와 관용, 법과 질서를 3대원칙으로 정하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신 점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충북 북부권, 강원권, 경북 북부권 등을 연계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2004년 8월, 2005년 6월, 2005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건의 하였습니다.

◎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대하여는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건설교통부 방문 및 2007년 5월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07년 11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2019년 이후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 드리며 건의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부 이전으로 접근성이 증대되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충북북부권, 강원권, 경북북부권은 행정도시와 접근거리가 지역별로 43km~134km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여건이 더욱 불리해져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충청권과 강원권에 기 건설된 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망이용시 이용교통의 우회거리가 멀어 충청고속도로 건설시 행정도시로부터 원주시까지 우회거리가 32.1km 감소되고 차세대 국가산업발전을 주도해 나갈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충주·원주 기업도시 등 지역 주요거점 연결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충북 북부권, 강원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도청을 이용해야 하는 도내 중·북부권(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도민들이 도청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양을 기점으로 2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주민들은 1시간대 소통이 가능한 서울을 더 가깝게 이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경제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에 2019년 이후 추진계획으로 반영된 충청고속도로를 행정도시 입주 완료 이전에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충북도민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심은 물론 새로운 정부의 배려와 관용의 국가경영원칙을 이루시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8. 2. 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인 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0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제2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의회사무처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운영 기본방향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의정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정립,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도민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전개, 효율적인 회기 운영, 도민을 위한 열린 의정실현,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찬회, 어린이 의회교실의 확대 운영,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등의 역점과제를 선정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현안과제인 의정활동 지원차량을 증차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하였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3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부의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4일(제2차 본회의)과 3월 5일(제3차 본회의)은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며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와 당면업무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3월 14일 제4차 본 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

1월 23일 제2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업무계획 청취

1월 23일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군간 및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촉구



▲ 현지확인 1월 30일 제천 종합연수타운예정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8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 열린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예정지 현지 확인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충북개발연구원·교통연수원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새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대폭 정비 및 특별법 폐지 등 작은 정부에 입각한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기업도시에 대한 정책 변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따른 국책

사업 예산 반영 축소와 기업유치 차질 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의 현안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새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전략수립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새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도 조직진단의 적시성 유지, 도·시·군간 및 시·군간 권역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원원체계 구축,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에 대한 충청북도의 로드맵 수립, 군특재원 낙후지역 지원 확대강화, C Project(차이나월드)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등을 촉구하였다. 특히,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본부의 정책을 격려하면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코하마시와 같은 선진 디자인 도시를 벤치마킹 하는 등 다양한 공무원 능력배양 및 인력투자와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아름다운 충북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공 디자인 정책 추진수립을 촉구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공간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충북학사의 신축·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충북학사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도있는 질의·토론 후 충북학사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충북학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매각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다만, 현재 충북학사 이용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산 가치에 의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충북학사 건립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그밖에 충청북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추진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과 관련 제천시 방문하여 제천시시장 및 제천시 의원 등과 종합연수타운의 추진 로드맵과 추진상의 어려움을 토론했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를...

교육사회위원회(부위원장 박영웅)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직속기관,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유가 인상 등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대해 관계관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현장중심행정을 펼쳐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다.

이어 실시된 충청북도교육

청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시 최근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부문에서도 학생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장애인과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으며, 특히 일대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충북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주문했다.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 간담회
1월 23일 충북학사 및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업무계획 청취
1월 24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 간담회
1월 2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1월 24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이영복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농정본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명품브랜드 육성, 정예농업인 양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어메니티가 넘치는 농산촌, 농업인 복지향상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한미FTA비준이 금년도에 처리될 전망이므로 도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생산에서 경영까지 고품격 농업연구 서비스 확립, 농업인·소비자 동시만족 원예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 친환경 명품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 생활 활력화, 글로벌 전문농업인 양성고 고품격 서비스 실천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1월 29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민경환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규완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경제투자본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인류기업 유치, 서민 경제활동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중점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 등에 관하여 청취한 후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첨단 유망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여 2010년 도민소득 33,000불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업무계획 청취
1월 24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당부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건의문 결의, 충청북도관광진흥조례안 제정에 따른 자문 및 의견수렴을 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교량의 교명판, 설명판, 난간 등에 대한 철제 도난사고에 대한 방지대책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급커브 지역에 대한 선형개량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경부 육산 JCT~중부JCT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재해위험시설인 모충교 등 3개 교량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한반도 대운하 건

설에 대한 TF팀 운영상황 및 충청북도의 향후 대응계획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였다.

또한 생태하천연구회 학습동아리 활동은 바람직한 연구모임으로 앞으로 시·군 직원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하천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수해복구 등 하천정비공사시 호안벽이 아닌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먹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 수라상 등 각 시·군별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 접목하여 관광 상품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추진단계에서 의회 및 제천시 관계자 등과도 업무협조 체계가 부족한 것에 대한 대책과 문화재연구원 조사실장 공석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WTC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간담회 ▶
2월 1일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및 주요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업무계획 청취
1월 24일 건설경제본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주요처리의안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충북학사를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 매입 등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충북학사를 매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충북학사 매각.
- 매각조건
 - 충북학사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 재산명도.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
-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변경.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폐교재산 대부료의 연간 감면 한도를 용도별로 변경.
-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 규정 마련.
-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
- 은근재산 신고보상금 한도를 인상.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 구조로의 전환 등 기본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 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 운용하도록 함.
- 설치의무기관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 면제검토서의 첨부여부를 확인 등

에 관한 규정 신설 등

☒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도민의 경제분야 관심 고조 및 도민이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제교육 기본원칙
 - 경제교육은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
 - 특정 단체 등의 이익 옹호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됨.
 - 지역 성별 나이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함.
- 경제교육시책의 수립·시행
 - 중앙계획과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경제교육시책을 수립 추진 하도록 함.
-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
 - 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등

☒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교류에 활기를 띠고 있음에도 충청북도의 경우 교류실적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인도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구축으로 통일농업의 교두보를 확보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북한의 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를 정함.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북한에 진출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안 이유]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요양·장·장제·유족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상의 수혜범위가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기준의 적용범위를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홍보활동까지 확대 적용.

☒ 충청고속도로 조기건설 건의안: 원안가결



5분 자유발언

폐석면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 촉구

장 주 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진천군 문백면의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 관련 대책수립을 건의하고자 한다.

석면은 인체에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 3μm(마이크론) 이하의 섬유는 기도를 거쳐

폐에 침착되고 이로 인해 석면폐,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병을 발생시키는 유해성이 매우 큰 물질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일단 몸에 들어가면 10~40년이 지나 발병할 정도로 잠복기간이 긴 1급 발암물질로 죽음의 먼지로 불린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5일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1번지에 (주)이슬루션이 폐석면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다. 이 업체의 본격적인 가동 시 예견되는 피해는

첫째, 주민건강 피해이다.

허가지역 1km이내에 어린이 집 등 15개 마을 2,715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피해가 예견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의 포기이다.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GAP)을 취득한 청정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셋째, 생겨진 브랜드 가치 전멸 우려이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생겨진 쌀을 비롯한 친환경 농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넷째, 자치단체의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 및 환경교폐로 인한 기업체 이탈로 주민이주 등 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진천군민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힘겨운 저지운동을 하고 있다. 7만 진천군민의 행방추구권과 생존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도지사님께서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폐석면 처리업 시설을 국가에서 설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268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8. 3. 3. ~ 3. 14.(12일간)
- 의사일정

일 시	부의안건
3. 3.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3. 3. ~ 3. 14.(12일간)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기타 안건 처리
3. 4. (10:30)	●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사책 질문 ● 건설문화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3. 5. (10:30)	●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사책 질문 ● 교육사회위원회 ● 산업경제위원회
3. 6. ~ 3. 13.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 기타 안건 처리
3. 14. (11:00)	● 제4차 본회의 1. 부의 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위원회명	주요안건
의회운영위원회	● 제26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운영위원 간담회 ● 주요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도정질문(김환동 의원) ● 제천연수타운의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대안 토론 기자 간담회
교육사회위원회	● 도정질문(임 현 의원) ● 주요현안 처리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산업경제위원회	● 도정질문(이대원 의원) ● 충청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등 심사 ● 소관 산하단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간담회
건설문화위원회	● 도정질문(김인수 의원) ● 영동소방서 준공식 참석 ● 제천한방엑스포 개최예정지 현지확인

건강보감

사상체질에 따른 올바른 숙취해소법

즐거운 술자리에서 적당한 음주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와 잦은 음주는 결국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술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면 그 성질이 뜨겁고 독이 있다고 하였다. 적은 양의 음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장병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나 자기의 주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주독으로 인해 몸이 상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주독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해독하기 위하여 몸에서 많은 양의 수분과 당분,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해독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술은 성질이 더운편이므로 더운 성질에 의해 온몸에 혈액을 잘 돌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팽창에 의해 땀이 나면서 평소 냉체질의 경우에는 체온이 오하러 내려갈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술을 마시고 나서 컨디션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만성피로가 유발된다.

평소 위장이 냉하고 허약하여 소화력이 부진하고, 입맛이 별로 없고 손발이 차가운 편이고 특히 명치를 중심으로 늑골의 좌우각도가 90도 미만의 몸통이 작고 상대적으로 골반의 크기가 항아리처럼 큰 체형을 한의학에서는 '소음인'이라고 한다.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하여 흡수장애로 인해 빈혈과 저혈압도 흔한 편이다. 음주를 하게 되면 위장을 쉽게 상하게 되므로 다음날 식욕부진, 속쓰림, 설사,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소화기장애는 별로 느끼지 않지만,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면 뱃속이 뻗뻗하고 어깨나 등이 결리고,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며 몸에서 열이

많이 나서 잘 때 옷을 입고 자지 못하는 체질도 있다. 태음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태음인은 늑골의 각도가 보통 1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몸통이 통나무처럼 큰편이고 허리와 가슴부위의 둘레가 비슷한 체형의 소유자다.

소양인은 가슴이 넓고 커서 흉곽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허리부위가 협소하여 전체적으로 역삼각형의 체형을 형성한다. 성격이 활발하고 남과 교제하는 것을 즐기 때문에 사교성이 좋고, 낙천적이며, 몸놀림이 민첩한 편이다.

소양인은 소화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평소 열이 많기 때문에 소주라도 한 잔 하면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의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려움을 많이 느낀다.

소양인 중에 술을 약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는 음주로 인해 두통과 요통, 피부병을 경험하게 된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량의 음주가 바람직하며, 만약 과음을 하였을 때에는 위장장애를 많이 느끼게 되므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할 할 수 있는 꿀차나 인삼차를 여러번 복용하는 것이 좋

겠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녹차와 수박, 오이 같은 시원한 성질의 음료나 과일을 섭취하면,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체질이 근육질로 건강하며, 대개 얼굴이 검붉은 편인데, 음주후에 머리가 무겁고 뒤통리와 어깨가 무겁다면 협차를 복용하거나 찜질을 마시는 것이 좋다.

간혹 과음으로 인하여 구토나 설사가 심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모과차를 복용하는 것이 좋고, 요즘처럼 추운날씨에 과음후에 편도선이나 목부위가 아픈 경우에는 유자차도 도움이 된다.

최선의 올바른 음주법은 자기주량에 맞는 적당한 양을 마시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체질에 맞는 차나 주독을 해독할 수 있는 콩나물국, 미역국, 복어국, 조개국을 권한다.

음주후에 주독을 푸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렵겠지만 다음날 아침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태영(백제한의원장)

의원칼럼



김 환 동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대운하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한반도 대운하건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운하 추진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군사주의적 발상으로, 이 당선인측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려는 초법적 발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

통합민주당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과연 대운하가 필요하냐는 문제부터 환경파괴, 수질오염, 경제적 효과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에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운하건설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각종 기고문에서 발표하였듯이 홍수피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의 방지,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식수난 해결, 물동량의 확대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낙후지역인 괴산을 포함한 충북 중·북부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역개발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괴산 달천강과 문경 영강을 연결하는 25Km의 대형 인공터널을 뚫는 공사가 포함된 대운하 건설은 충북 중·북부권과 경북 북부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받던 충북의 중·북부권에 새로운 개발의 축으로서 역할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소외지역이던 충북 중·북부권의 건설사업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증대, 소득증대 등 지역발전의 튼튼한 기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충북 중·북부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천댐건설 백지화” 역시 대운하건설을 통하여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한강과 낙동강에 운하가 만들어지면 담수량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무려 10억톤이나 늘어나며, 이는 팔당댐 4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담수 효과를 통해 미래의 물부족을 대비할 수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수자원이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셋째, 한반도대운하는 낙후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위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땅과 산하의 기억은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국토에 대한 사랑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는 괴산지역을 수변공간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공간과 놀이공간, 그리고 우유했던 도시 사람들에게 새로

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괴산지역을 리프트와 갑문,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운하로서 레인보우 관광벨트의 최적으로 만들 수 있어 더욱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운하의 건설은 정확한 분석과 많은 토론, 그리고 국민참여를 거쳐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운하 건설이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기본축으로 발전한 유럽의 지방처럼, 한반도대운하의 물길을 열어 지방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운하를 따라 펼쳐질 상상의 나래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이다.

낙후되고 소외받아 온 우리 충북이, 우리 괴산이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계기로 창조적 지역발전의 기초를 닦고, 옛 조상의 선견지명으로 배가 넘어다니는 경부운하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운하 건설에 괴산군민과 함께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

〈말풀이 세상풀이〉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와 노점상 할머니의 눈물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시절, 재래시장인 서울 원당시장을 방문했을 때, 30년째 생선노점상을 한다는 김성립(67) 할머니가 이 당선인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여러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그리고 김 할머니의 소박한 호소가 소개됐다. ‘장사가 잘 되게 해 달라’ ‘손자들이 일자리를 잡게 해 달라’는 할머니의 호소는 소박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었다. 민주, 자유, 분배, 개혁, 평등, 복지, 통일, 遙遙 그런 거창한 문제들과 거리가 먼듯하면 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할 만큼 크고 절실한 것이었다.

국민들이 ‘일 해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일이 정치의 근본이다. 자유와 권리, 민주와 평등을 아무리 떠든 대도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한 정치요 가혹한 정치다.

어쩌면 인권의 기본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약보다 생존의 기본인 일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제약,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정치가 더 가혹한 정치인지도 모른다.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대산(泰山) 절을 지날 때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 공자가 제자 자로(子路)에게 그 까닭을 묻게 한 즉, 여인이 그 사연을 말했다.

‘저의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호환(虎患)으로 돌아가셨는데 저의 남편도 같은 화를 당했고 이번에는 아들마저 같은 재앙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호랑이가 많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공자의 물음에 여인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마음에 새겨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小子識之, 苛政猛於虎也)는 것을!’ 예기(禮記)의 단궁 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얘기다.

그동안 고단한 삶, 막대한 세상을 풍자하는 술한 말들, 사오정, 오륙도, 이태백, 방곡죽, 88세대 등은 모두가 초급한 생계와 연관되는 것들이다. 이들이 겪

는 술한 고통, 생선장수 김 할머니의 호소가 태산 절의 무덤에서 3대 호환의 불운을 곡(哭)하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여인의 갈등과 무엇이 다르랴.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 생물을 기르고 다루는 이들이 이른바 정치가요, 그중의 주역(主役)이 대통령이다. 주역의 능력과 덕성, 관심에 따라 생물인 정치는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고통과 두려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지난 세월은 미래를 위한 거울로 삼을 일이다. 그동안 쏟아놓은 잘못된습, 가슴앓이원망, 태산분노도 잊고 삭일 수밖에 없다. 신임 대통령이 펼치는 정치가 진실로 민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생선노점상 김 할머니의 눈물이 다시는 언 불을 적시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다.

그러나 소망과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사소한 것들은 젓혀두고라도 신임 대통령의 가슴이 온 국민을 품어줄 만큼 크고 넓고 따뜻한지는 지켜 봐야할 일이다. 기업체 사장, 서울시장 재직 시에 발휘한 그의 능력과 덕성이 국정전반에 임해서도 순항을 가능케 할 것인지, 확실한 검증은 못되기 때문이다. 발탁된 새 정부의

각료나 참모들도 정실이나 ‘코드’가 아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라지만 모두가 검증된 ‘베스트’ 인지는 역시 의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시작 1개월여가 된 2월 초에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대선 직후에 비해 10%포인트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지만 그건 출산진통의 여파라 치자. 이제 새 정부가 발전(發進)했으니 언론은 일종의 밀월기간을 두고 관망할 것이다. 주춤했던 여론도 새 정부의 향로를 지켜보면 서 호오(好惡)를 매길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내 코앞 설거지만 독촉하지는 말자. 국민들의 지나친 이기심, 배타심이 통치자의 시야를 흐리고 향로판단을 흐트치면 난항(難航)은 필연이다. 통치자가 향로판단을 흐트친다는 것은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조짐이다.

총선 전초전은 이미 불이 붙었다. 통치자의 향진을 돕거나 난항을 견제, 감시할 국민의 대리인을 제대로 뽑는 것은 유권자의 엄중한 의무다. 때문에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은 대통령과 각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새겨야할 덕목이다.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

의원동정



◀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2월 21일 금왕읍사무소에서 열린 금왕읍민 웃돌이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2월 5일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문화정보대학 수료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1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도경제교육협의회에 참석하여 위원 위촉 및 현판 제막식에 참석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1월 29일 이월농협 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의료봉사단 및 관계자 격려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2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1C 청풍아카데미 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2월 15일 2008년도 천등산 기원제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1월 30일 도청에서 열린 청풍 정보화마을 선포식 행사에 참석, 지역주민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1월 11~15일까지 5일간 충주시 관내 읍·면·동을 순방하며 주민들과 지역현안 토론 및 애로사항 청취



◀ **김항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1월 31일 괴산군 장연면에서 열린 괴산군 보건소 장연지소 준공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이범운** 의원
(단양 제2선거구)

2월 12일 단양군 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정보고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견수렴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1월 18일 청주 가화한정식에서 열린 청주시 축구연합회 이사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1월 16 방송통신대학 청주학습관에서 열린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참석, 주민 및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2월 22일 청원군 내수읍에 위치한 주성대학 졸업식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2월 13일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영동군 생활체육협의회 총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1월 31일 청원군 옥산면에서 열린 옥산면 군정보고회와 이장 회의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1월 31일 법주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문화재 관람료·주차료 인하 및 수거식화장설 설치 건의



◀ **연만호** 의원
(증평 제2선거구)

2월 4일 증평군청에서 열린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군청 설명회」에 참석,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2월 4일 진천군 백곡면사무소에서 열린 군정보고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1월 28일 옥천읍 명가에서 열린 옥천재향군인회 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1월 25일 단양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단양지역 문화재 보존과 활용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문화재 활용방안 토론



◀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월 15일~20일까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주관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 협력방안 논의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2월 14일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신년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2월 20일 석교동 육거리시장에서 열린 재래시장 삼수Family Day 행사에 참석, 시장주민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1월 31일 괴산군 청천농협 정기총회에 참석, 지역주민 · 관계자 격려 및 축사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1월 25일 청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BIG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신당)

1월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성포럼운영위원회에 참석, 참석자 및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월 31일 보은군 수한면에서 열린 수한농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1월 31일 증평 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충청북도씨름대회 정기총회에 참석, 2007년 사업결산 및 2008년 사업보고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1월 31일 문의면 사회복지관과 신협회의실에서 열린 영농교육 및 문의신협총회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